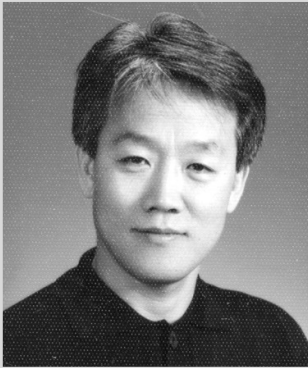


패키지디자인 중요성과 위상 널리 알릴 계획

후학 양성 위해 현장 실습형 교육 마련



김 대 현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회장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는 지난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김대현 플랜디자인 인스티튜트 대표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김대현 회장은 “내년이면 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시기에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자 큰 기쁨”이라며 “회원들에게는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패키지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협회원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패키지디자인은 제품의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품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의 핵심수단이자 과학적인 마케팅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패키지디자인의 가치와 패키지디자이너의 전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실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패키징의 중요성, 그 안에 패키지디자인의 중요성과 위상을 널리 알리어 패키지디자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김대현 회장은 (주)농심 디자인실에 입사하면서 패키지디자인업계에 입문하게 됐다. 주로 라면과 스낵의 디자인 개발을 담당했던 김 회장은 1988년 플랜디자인 인스티튜트를 설립, 식품, 생활용품, 공산품, 공업포장, 디자인컨설팅 등 전반적인 디자인 마케팅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지난 해까지 (사)한국디자인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였고, 산업자원부 출연 디자인 실용화센터 센터장, 조달청 디자인경영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1997년 산업자원부장관 디자인공로표창, 1999년 통산산업부 탑10 디자인회사 선정, 2002년 대통령 디자인공로표창을 수상 하는 등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패키지디자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왔다.

김 회장은 “30여년이 된 협회는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협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협회의 질적 수준은 그간 선배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성숙해 있기 때문에 내적인 운영은 새로 구성되는 협회 임원들에게 일임하고 외적인 일을 개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즉 디자인산업에서 패키지디자인의 위상 확립 뿐 아니라 모든 포장산업과 연대하여 포장산업을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 싶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포장업계의 대선배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을 바탕으로 협회 발전 및 업계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패키지디자인업계는 디자인컨설팅(브랜드 및 마케팅)을 접목한 내셔널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비즈니스와 로컬브랜드의 저가 패키지 디자인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 회장은 “디자인 컨설팅이 아닌 단순한 그림 값으로 살아가는 일부 디자이너가 있어 패키지

디자인업계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회가 앞장설 것이지만 상호간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김 회장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패키지디자인 분야의 후학 양성을 위해 대학교마다 패키지디자인협회의 오랜 경력의 회원 전문경력을 요약하여 공유함으로써 현장 실습형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모든 포장산업의 일체감 조성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강력한 포장산업총연합회가 구성되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기초산업인 포장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만 현재 포장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대현 회장은 “패키지디자인의 가치가 상승되기보다는 유지 또는 하향되고 있는데 아무런 기여와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평소 매우 안타까웠다”며 “패키지디자인 회장직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사소한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가며 협회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자인애정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패키지디자인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김 회장.

협회 발전 뿐 아니라 패키지디자인 위상을 위해 매진 할 김대현 회장의 노력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ko]

이한얼 기자